



http://council.gangwon.kr

강원도의정

월간 강원도의정 제131호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발행처 : 강원도의회

발행인 강원도의회 의장 김시성
편집인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한만수

Gangwon Council Activities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의회 TEL. (033)249-5169 FAX. (033)255-8167 kis1207p@korea.kr 인쇄 :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제9회 도의회 개원 1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욱 화이팅하는 강원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제 131호 지면안내

-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응답 2·3·4·5면
- 5분 자유발언 5·6·7면
- 제246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8면
-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9면
- 사회문화/농림수산위원회 10면
- 경제건설/교육위원회 11면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2·13·14면
- 의원동정 15·16면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응답



이 정 동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비례

Q 도의회가 도정의 발목을 잡아 도정 추진

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보는지?

도지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Q 장애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해서 자생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게 해 줄 의향이 있는지?

도지사 네, 올해 3월에 종합발전계획을 세웠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음

Q 강원도에는 장애인예술단이 없음, 이번 기

회에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여 올림픽 행사 등에 동참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도지사 장애인 올림픽에 대해서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종합계획안에 장애인예술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음

Q 원주 반곡동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주민들 반대에 대해 어찌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였으며, 아직 해결이 안되었는지?

교육감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대화와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 용 래 의원
교육위원회 / 강릉시 제3선거구

Q 관광올림픽 실현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도지사 문화·관광올림픽을 함께 묶어 마스터플랜을 문체부와 함께 짜서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음

Q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강릉·평창에 하류저류시설 신설, 불량 광고물 정비, 생태하천 복원, 특구 지역내 노후·불량 건축물 재조사 정비계획 수립, 영월 태양광 발전단지 및 봉어섬 조성·운영,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등을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환경 정비 사업을 올림픽 4대 목표 중의 하나인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도지사 순차적으로 우선 경기장 건설, 그다음에 문화·관광올림픽, 그리고 환경올림픽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다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

Q 2015년 5월 13일에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교육감 내용의 핵심은 누리과정을 의무지출 경비로 하겠다는 것과 교부금 배부기준 중 학생 수 배부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거기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이런 문제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

Q 5·13대책을 철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은 고무적임, 이번 대책이 시행될 때를 대비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교육감 그렇게 된다면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6월 4일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기존사업 검토 TF팀을 만들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만전의 노력을 하고 있음



한 금 석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철원군 제2선거구

Q 지금,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을 한기호의원이 발의해 놓은 것이 있음, 접경지역의 사회기반 확충 사업 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 발의해 냈는데 계류되어 있음, 접경지역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고, 접경지역 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이 있음,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군과 국회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접경지역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국방부의 국방규제 개선과제에 포함되도록 건의하였고, 지난 4월20일 경기도지사가 강원도에 왔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 방안에도 군사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협약을 맺고, 양 도가 힘을

합쳐서 관련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Q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접경지역 예산확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디엠제트 전체의 대응방안 및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가능하신지?

도지사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원도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첫 번째로 동해안에 철조망이 한 160km 있는데, 올해 강력하게 요청해서 16km정도 철거했고, 다음 순위로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두고 있기에 TF팀 구성도 가능함



장 석 삼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양양군

Q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경계철책 철거가 우리 도민들에게는 희소식임, 하지만, 아직 잔존해 있는 철책이 162km라고 본다면 약

1000억원 이상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발생할 철거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도지사 15km 철거하는데 88억원이 들어감, 이것을 강원도에서 부담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여기에 대해 도에서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기재부와 행자부에 특교세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Q 지금 강원도 교육의 수준이 어떻다고 보는지?

교육감 강원교육이 전국에서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음

Q 강원도 교육이 뭐가 앞서 가는지?

교육감 수치화, 계량화된 것만 가지고 교육을 말하면 교육의 본질을 저해할 수 밖에 없음, 교육의 본질은 인간성 실현임

Q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우리가 좋은 말로는 인격체라고 하지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그늘에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기초학력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의 본질을 말하는 건 그런데?

교육감 기초·기본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음, 다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만 가지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최 성 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원주시 제6선거구

Q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교육감 강원교육의 최고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고, 모두는 사람임, 사람을 위한 교육이고, 하위 슬로건의 교육지표는 '행복

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임. 학교라는 곳이 '스콜레(삶을 즐긴다)'인 것처럼, 스스로 삶을 즐길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삶의 방향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교육을 펼치고자 함

Q '행복더하기 학교'정책을 펼치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며,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감 '행복더하기 학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는 아이가 없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좋은 성과들을 모든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이 어려움

Q 행복더하기 학교 지정의 1·2차 응모 현황을 보면 많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지정이 된다면 기본방향에 따라 많은 혜택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도 응모결과

가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함,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교육감 혜택은 2,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있지만,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더 많음. 회의라든지, 사전 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든게 많음

Q 강원도 학교구성원을 위한 인권조례와 강원학교인권조례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용어인지?

교육감 강원학교인권조례임

Q 다른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는데, 강원도는 학교인권조례임, 그 이유가 뭔지?

교육감 학생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학부모의 참정권까지를 아우르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에 관한 조례임



곽 영 승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평창군 제2선거구

Q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도지사 삼척시와 동해시가 잘 협의가 되어서 동해항도 짓고, 삼척시에 해안침식도 되

지 않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임

Q 급식센터 설립에는 도비, 국비, 시·군비가 들어감, 학교급식센터 왜 설립하셨는지?

도지사 학교의 요구가 있었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싸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음

Q 그런데, 급식센터가 공급하는 식자재 중 강원도산은 4.5% 밖에 안됨, 그러다보니, 당초 목적은 살리지 못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옥죄고 있음. 이런 정책 왜 추진하시는지?

도지사 본래 급식센터는 로컬푸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른 민간업자들이 외부에서 싼 것을 들여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Q 도내 대학생 1만 2천명에게 소득과 무관, 매년 50만원씩, 그래서 매년 60억원을 지사님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해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심, 그런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키는 바람에 지급을 못하게 됨, 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지?

도지사 대학생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숫자를 유지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음,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느라 전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난한 학생들부터 주는 것으로 안을 올린바 있음



심 영 섭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강릉시 제선거구

Q 독립대학 총장 응모에 사명감을 가지고 신청한 9명의 후보자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또 강릉시민과 우리 160만 도민 전체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실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대학 총장 임용에 관련,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왔지만, 공모 절차라는 것은 대학만 갖고 있는 절차가 아니고, 도 산하기관에서도 기관장 임용에 공모 절차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음. 공모 절차를 거쳐, 책임자가 없으면 재공모할 수도 있고, 임용 절차 중에 공모 절차는 대부분의 산하 기관장 임용에 사용되고 있음

Q 강원도에서 요구한 교수평가제 변경과 소급 적용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도와 논의를 하려면 대학 측 자체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임

Q 독립대가 1998년~2000년도까지만 해도 취업률이 50% 이상 됐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음, 도

의 여러 가지 간섭으로 교수, 총장 등 구성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교수 따로, 총장 따로, 학생 따로 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획조정실장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분발할 수 있는 구조나 문화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함, 그 중요함 기초가 새로운 인사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함

Q 독립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총장에 임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독립대에 대한 입장은 처음부터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직선제 그리고 공모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났음.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우수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최 명 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영월군 제선거구

Q 투자유치과에서 2014년 1조 5,220억원이 3년 내 최다 실적이라고 했음, 투자유치과 BSC 성과를 보면 도내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해, 도내 기업을 통한 투자규모 실적이 2조 4,964억원이었음. 이것은 결국 2013년이 더 많았는데, 2013년도에 유치했던 2조 4,964억원의 투

자는 투자가 포기되거나 한계 있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3년에는 투자유치과가 분리되기 전의 수치였기 때문에, BSC 성과지표는 투자기반조성과하고, 합쳐져서 성과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의 투자유치 실적 중에는 일부 사업이 진전되지 못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

Q 일자리 창출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경제진흥국장 이전 기업이나, 기존 기업을 보면 취업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 고용에 미스매칭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산업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Q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도민들이 가장 긴급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고 봄

Q 뭐가 공무원조직에서 자발적 역동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도지사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상하관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안됨

Q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하는데 그것이 인사라고 봄, 공정한 인사를 해야하는데, 공정한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함, 그래야 직원들 간에 긍정적 여론이 쌓일수 있고, 조직의 자발적 역동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부탁드림

도지사 아랫사람들로부터 신망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발탁하는 인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음



임 남 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태백시 제선거구

Q 강원도 교육공무직 정원은 6,540명이이고,

현원은 6,480명임.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 정원은 6,540명인데,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이 있고, 정원 외로 관리하는 직종이 따로 있는데,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행정국장 6,540명의 교육공무직이 있음,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32개 직종 5,525명, 정원 외로 관리 하는 것이 31개 직종 618명, 사립학교 회계직 397명 있음,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음

Q 교육공무직과 정원외 공무직이 있는데, 직종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행정국장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32개 직종이 있고, 학교장이 관리하는 31개 직종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음

Q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방서 중 8개는 강원도 공유재산으로 편제되어 있고, 7개 소방서는 지방 자치단체하고 강원도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음, 이 7개 소방서도 향후에는 강원도 공유재산으로 이관할 계획이 있으신지?

소방안전본부장 7개소 중 강릉, 태백소방서는 금년 6월에 부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양양소방서도 금년 하반기에 도유지하고 교환할 계획에 있으며, 나머지 4개소도 연차적으로 교환 추진 할 계획임

Q 소방 헬기 구매 추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해 주시겠?

소방안전본부장 규정상 먼저 우리가 어떤 헬기를 구매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를 받아 표준규격을 만들고, 도의 일상감사를 거쳐 조달청에 국제경쟁입찰요청을 함, 조달청에서 내자입찰로 못하는 이유에 대해 증명하라고 해, 국내 하나밖에 없는 헬기판매업체에서 우리가 요청한 13가지 중 8가지를 못 보내와 그 결과를 조달청으로 보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달청에 다시 외자 국제입찰을 요구했음, 그런데도 조달청에서 다시 내자 입찰로 하라고 했고, 국내 판매업체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요청이 왔음.

2013년, 충청남도에서 헬기 구입시, 국산헬기 업체도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조달청에서 외자 국제입찰로 했음, 똑같은 사안인데 강원도에는 내자 국제입찰로 하라는 통보를 해 강원도소방안전본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검토 중에 있음.



조 영 기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양구군

Q 예전에 CCTV 사생활침해 논란이 효용성 입증으로 종식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더 달아달라는 분위기가 되었음, 강원도에서도 의원발의로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는데, 청정 강원, 또 치안 예방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은?

도지사 강원도가 CCTV 설치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함

Q 정부의 역차별 중소기업 정책 지원사업 관련 창업 5년 이내 기업에만 모든 지원사업이 치중되어 있음. 2013년도부터 대구가 치맥 축제를 하고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짧은 기간에 닭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음. 그들은 과격적으로 달구벌을 닭구벌로 표기하는 등 발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50여 년 동안 닭갈비업소가 지켜온 닭고장의 이미지를 산업화 하는데 지사님은 관심이 없으신거 같음, 심지어, 일반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닭을 산업화하고자 협동조합 다그로월드를 결성, 춘천을 세계적인 닭도시로 만들자고 나섰으나, 행정의 지원이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해 지는거 같은데?

도지사 다그로에 관해서는 저도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발전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음

Q 강원도의 경제와 함께해 온 10년 이상된 우리 향토 중소기업들은 시대경제적 어려움을 어느곳에서 지원받아야 하는지와 도내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난관에 부딪힘에도 도에서는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부지사 기업들이 가장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자금과 판로임. 도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또 도내 토종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 3개 기업에 5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TV광고라든지, 홈쇼핑 입점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

5분 자유발언

장애인 야학 지원에 관한 제언

제246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5. 6. 10.(수)



이 문 희 의원

교육위원회 / 원주시 제3선거구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성인장애인 야학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전무한 실정입니다.

강원도에도 원주, 강릉, 동해, 속초지역에 4개의 장애인 야학이 있으며 원주시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반딧불장애인야학'은 강원도 최초로 2008년부터 원주시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성인 문해교육을 시작했으며 현재 50여 명에 가까운 성인장애인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 매회 장소를 옮기면서 진행하고 저녁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야학에 등교해도 교실이 부족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몇 년째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공간인 '반딧불장애인야학'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성인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 이전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딧불장애인야학'은 최소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현실과 환경에 강원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학력 향상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진일보(進一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필요하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DBS선사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제246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5. 6. 10.(수)



김 규 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동해시 제1선거구

올해 강원도 주요 업무시행 계획에 따르면 동해항은 DBS항로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여객물류 유치, 속초항은 중단된 속초~자루노비·훈춘항로 재개로 TWO-PORT

항로 완성으로 인한 북방향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해항을 기항지로 일본 사카이미나토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하는 DBS 크루즈훼리가 2009년 취항하여 현재까지 항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대와 함께 우려감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DBS선사에 동해시의 시비를 제외하고도 강원도는 약 27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비를 보조하여 이제 겨우 자생력을 가질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속초항의 스테나대아라인사의 항로를 DBS사에 운항 허가함으로써 1개사가 2개 노선을 운항하게 된다면 1개 노선은 적자가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동서횡단 교통망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수 있지만 국제항로는 이 역설이 먹히지 않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경제학이론이 적용되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ONE-PORT 정책으로 진행하다가 여건 성숙 국면에서 TWO-

PORT 항로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강원도의 조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어렵게 유지한 동해항 DBS 크루즈훼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축 형성을 공고히 하는 국제항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더욱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과 경북 등 타 지방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관광, 공산품, 농수산물 수출 등과 연계하여 강원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안 마련을 주문드립니다.

강원도의 극심한 가뭄과 관련하여

제246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5. 6. 10.(수)



진 기 엽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횡성군 제1선거구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58% 수준이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예년의 39%수준으로 가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년 전 오직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무색해 질 만큼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이 댐 건설 이후 최저 수위를 기록했는가 하면 물줄기 폭이 120m에 달하던 하천이 2m~3m의 실개천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에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도민들의 심각한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정과 스프링쿨러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히 지원하고 농림식품부에 국비 55억원과 국가안전처에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비 26억원을 배정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강원도 농촌의 현실입니다.

중앙부처는 이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가적인 긴급 용수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보다 진일보하고 항구적인 정책 수립과 더불어 대응 체계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서는 주먹만한 금덩이보다 한 잔의 물이 소중한듯이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말라붙은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모쪼록 장기화되어 가는 가뭄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번 가뭄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적약자인 시급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관련

제246회 임시회 / 2차 본회의 / 2015. 6. 19.(금)



홍 성 옥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태백시 제2선거구

생활정치실현연구회 모임의 김동일 회장과 회원은 6월 18일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알바 체험을 하면서, 1시간에 5,58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과연 매일매일

시급을 받아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시급이 적정한지와 시급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 29일 이전까지 내년도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인상안을 놓고 격렬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올해 최저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7.1% 오른 5,580원이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 측의 주장은 최저 시급 1만 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최저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됨으로 내부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약 117만 원의 최저 임금을 받으며, 기초생활 영

위가 어려운 근로자들이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하루 벌어서 가족 전체의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월 117만 원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 인상은 저소득 계층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영역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중소기업들이 최저 임금 인상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게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소방헬기 구매 관련(4차)

제246회 임시회 / 2차 본회의 / 2015. 6. 19.(금)



정재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춘천시 제5선거구

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해 지난 5월 27일자로 조달청에서 강원소방안전본부로 ‘헬기구매 관련 의견

서 송부 및 구매방식 검토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강원소방에서 외자조달을 끝내 고집한다면 조달청에서는 더 이상 조달 진행을 할 수 없으니 강원도에서 알아서 하든가 아니면 지참대로 내자조달로 전환할 것을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 내용이었습니다.

6월 1일 자로 소방본부에 전문위원실 명의의 공문으로 공문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6월 3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제출 거부를 정식 공문으

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 강원소방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헬기구매 진행과정보고 시 조달청 공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도의원님들을 기망하고 우습게 보는 겁니까?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소방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조달청의 이야기도, 항공우주 산업의 이야기도, 국민안전처의 이야기도 들

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소방도 헬기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하면 생산현장 시찰도 다녀오고 나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29일 국민안전처에서도 강원소방에 국가시책인 조달청의 지참대로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 하였습니다. 따르지 않을 시,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230억 원이 쓰이는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하여 올리는 제언

제246회 임시회 / 2차 본회의 / 2015. 6. 19.(금)



김기홍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2선거구

많은 분들께서 254명 탑승자 중 228명이 사망한 1997년 KE801편 관 추락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항공사고는 한 가지 요인으로만 일어날 확률이 극히 드문데 이 사

고 요인으로 지독한 악천후, 고장으로 인한 활공각 유도장비인 관공항 glide slope의 부재, 그리고 우리 문화의 특징이 꼽히고 있습니다.

악천후와 관공항 장비 고장만 없었어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실제 관 사고 블랙박스에 의하면 부기장과 기관사는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장의 권위 앞에 행여 심기라도 건드릴까, 돌려 말하는 완곡어법으로 시종일관했고 기관사는 ‘기장님, 육안에 의존해 착륙을 시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상레이더를 보십시오!’란 말을 감히 하지 못해

‘오늘 기상레이더 덕 많이 본다.’란 혼잣말로 의견을 표출했다 합니다.

지난 4월 소방본부 기행위 보고 때 국산헬기는 산악구조를 포함해 소방헬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여덟 가지 기술적 미충족 사유가 있고 군용으로 개발된 사이즈 자체도 사용하기 너무 크며 그 때문에 가격도 가장 비싸고 항공법 적용 형식승인, 감항증명도 못 받은 상태란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문화적 기피사항인 외자 유출로 초점이 옮겨간 문제라 기관사처럼 혼잣말로 넘기고 싶었지만 이 사

안은 소방대원과 도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이 혹 때를 놓친 충돌 몇 초 전 외침이 될까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본부는 안전, 효율성, 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국산헬기를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산 헬기 강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 관계자와 도민,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안전과 효율성에 맞춰져야 합니다.

도의회 현안과 관련하여

제246회 임시회 / 2차 본회의 / 2015. 6. 19.(금)



김성근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속초시 제1선거구

지방의회 의원의 1년 의정성과를 평가하는 일부 보도내용과 이에 대한 의회 지휘부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가 전국 최고로 일손 적게 하면서 수당은 많이 받아 간다고 지난 6월 3일 KBS 7시에 방영 되는 강병이에서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타 시도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와 주민 수, 그리고 자치단체 유형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를 조사해 본 결과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가 최하위권인 14위, 5,100만원을 지금 의정비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의한 조례안의 숫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 최하위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원도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발의 건수만을 가지고 조례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조례 제정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평가하는 우를 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지휘부에서는 도의회에 대한 외부 평가를 심층 분석하고 대응할 부분은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 언론사에게도 우리 강원도의회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면과 전파를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들의 복리를 대변하는 강원도 의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246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재난대응 역량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위기대처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소관 업무 조정사항을 조례로 개정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의회 사무처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 보강 등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편의를 위해 현지성 강한 일부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도시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환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미래농업교육원, 강원도립대학의 구내식당에 대해 전문급식업체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과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로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강원도 사무에 대해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베를 회장 이사와 도시히로(일본) 등 12명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함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취득 1건, 교환 2건, 처분 1건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 제 안 자 : 최성현, 김용복, 김기홍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현재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하여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김동일, 이정동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들의 묘지 및 관련 현충시설 관리가 부실한 실정으로, 그분들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강원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가 조성한 수목원(도립화목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새로이 조성한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료 신규 반영 및 징수기준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대책 촉구 건의안

- 제 안 자 : 농림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도에서는 자체적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열악한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가뭄 종합대책의 수립과 이에 따른 국고의 특별 지원을 건의하려는 것임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안상훈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사회취약 노인계층에게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삶의 질이 높은 고령사회를 구현코자 추진중인 효도아파트 입주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강원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도의 경제발전과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기업이전보조금 지원제도 운용상 사후관리에 대하여 국비 지원 기준과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문구에 대한 자구 수정 등을 통해 기업이전보조금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 시·도와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인센티브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안

- 제 안 자 : 최명서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의회는, 정부가 오랫동안 어려운 지역경제를 이끌며 힘겨워 하고 있는 강원남부지역의 사정을 헤아리고, 타 구간과의 형평성, 국토 균형발전 정책기조 등을 고려하여 '제천~삼척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국지도 82호선(평창~제천간) 선형개량사업 조기 추진 건의안

- 제 안 자 : 박현창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의회에서는, 중부내륙지역의 핵심 노선인 '국지도 82호선 평창~제천 구간' 선형개량 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16~'20)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추진될 수 있기를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 정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

-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 학생 수 비중 확대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편성토록 함에 앞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폐기 및 농어촌 교육진흥 대책 수립과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강원도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관계기관에 건의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에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동의 하였다.



강 / 원 / 도 / 의 / 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함종국)는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의 내용을 직제와 내용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동의 하였고, 「해병대 완전독립 축구 건의안」은 건의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동의 하였다.
6. 11.에는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정선과 횡성의 현지를 점검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사회문화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강원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사업대상의 형평성 부족 및 도민 정서와의 괴리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다.

6. 15 ~ 16.에는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광 자원 활용 실태 확인을 위해 백담사, 만해마을, 여초서예관 등을 현지시찰 하였다.

강 / 원 / 도 / 의 / 회

농림수산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는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강원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결하였다.

6. 15 ~ 16.에는 강원도오징어가공협동조합, 기사문어촌계, 물치어촌계, 해담마을, 달래촌을 현지시찰 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경제건설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태)는 제24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안」,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강 / 원 / 도 / 의 / 회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제2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중단 및 교원정원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그리고 6. 11 ~ 12.에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신철원중고등학교, 장흥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를 현지시찰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2015. 6. 5 제18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식



● 2015. 6. 11 강원도의회 메르스 방역대책반 방문



● 2015. 6. 16 의장 방송 프로그램 녹화



● 2015. 6. 17 제246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 2015. 6. 23 평창동계올림픽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 2015. 6. 18 강원도의회 생활정치실천 연구회 민생현장 체험



● 2015. 6. 19 봉의고등학교 정치시사동아리 의회 견학



● 2015. 6. 26 농촌봉사활동



● 2015. 6. 26 설악동 게스트하우스촌 개촌식



- 2015. 6. 25 제8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 2015. 6. 26 속초 대포항 어민간담회



- 2015. 6. 26 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임남규)



- 2015. 6. 29 2015년도 강원도 성평등 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의원동정



▲ 김시성 의장은 6월 9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김규태 경제건설위원장은 6월 11~12일 양이틀간 경건위 주요 현안사업장(강릉 경포천, 태백석탄박물관 등)을 방문, 6월 16일 춘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남경문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위원장은 6월 10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6월 11~12일 양이틀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장흥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였다.



▲ 김동일 부의장은 6월 4일 인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DMZ 접경권 4개군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 6월 9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이문희 교육위원장은 6월 9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6월 11~12일 의정자료수집을 위해 '강원학생통일수련원, 장흥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였다.



▲ 강청룡 도의원은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6월 25일 제주 광령 양돈단지를 방문하여 '축산분뇨 비료화 시설'을 견학하였다.



▲ 권석주 부의장은 6월 5일 춘천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6.25 희생·순직 교직원 추모 행사'에 참석, 6월 9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김기홍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6월 9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박영승 도의원은 6월 1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 6월 30일 평창 대관령원에 농협공관장에서 열린 '2015년 대관령 원예농협 공관장 개장식'에 참석하였다.



▲ 임남규 운영위원장은 6월 9일 양양 전통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활성화 연구회와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 오세봉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위원장은 6월 9일 양양전통시장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6월 22일 강원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창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 김기철 도의원은 6월 8일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강원도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함중국 기획행정위원장은 6월 4일 횡성 인라인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 6월 24일 원주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구자열 분권특위위원장은 6월 12일 원주 관부면 서곡4리 일원에서 열린 '양귀비꽃 축제'에 참석, 6월 14일 원주 송암초등학교에서 열린 '제6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였다.



▲ 김성근 도의원은 6월 8일 속초 영랑호 잔디구장에서 열린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염원, 속초시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에 참석, 6월 26일 속초 대표항을 방문하여 '수산시장'을 점검하였다.



▲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은 6월 1일 춘천 의병마을에서 열린 '제16회 의암대상 시상식'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장세국 접경지역발전특위위원장은 6월 17일 춘천 강원도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 및 현안논의'에 참석, 6월 25일 화천 평화의담에서 열린 '제65주년 6.25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 김연동 도의원은 6월 11~12일 의정자료 양이틀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신철원 중·고등학교' 등을 방문,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권혁열 농림수산위원장은 6월 25일 강릉 베네키아 호텔에서 열린 '주문진로타리클럽 회장 아취임식'에 참석, 6월 26일 강릉 경포에 위치한 '시파크호텔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 이정동 장애인복지특위위원장은 6월 5일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김용래 도의원은 6월 6일 강릉 경포대 충혼탑에서 열린 '제6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6월 11~12일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신철원 중·고등학교' 등을 방문하였다.



▲ 김용복 도의원은 6월 15~16일 양 이틀간 '강원도오징어가공업협동조합, 물치어촌계 등'을 방문,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심영섭 도의원은 6월 9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6월 30일 강릉 청솔공원에서 열린 '청솔공원 화장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조영기 도의원은 6월 9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6월 23일 양구 양북회관에서 열린 '양구 사명리 라이온스클럽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남평우 도의원은 6월 22일 인제읍사무소에서 열린 '인제읍발전협의회 정례회'에 참석, 6월 27일 인제야구장에서 열린 '2015년 국민생활체육인제군수기 야구대회'에 참석하였다.



▲ 안상훈 도의원은 6월 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석, 6월 23일 원주 인터볼고호텔에서 열린 '강원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 진기엽 도의원은 6월 9일 황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정식'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박길선 도의원은 6월 20일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열린 '제43회 강원미술대전 전시회'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오원일 도의원은 6월 24일 원주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6월 27일 삼척 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원도교직원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하였다.



▲ 최명서 도의원은 6월 3일 영월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사회복지협의 실무회의'에 참석, 6월 9일 양양전통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활성화 연구회와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박윤미 도의원은 6월 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강원환경대상시상식'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원강수 도의원은 6월 10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최성재 도의원은 6월 9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6월 16일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박현창 도의원은 6월 15일 평창 대화면사무소에서 열린 '라이온스클럽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6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하였다.



▲ 유정선 도의원은 6월 9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6월 22일 강원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창출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 최성현 도의원은 6월 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석, 6월 16일 춘천 성수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성수여고 1학년 백일잔치'에 참석하였다.



▲ 신도현 도의원은 6월 24일 홍천 크리스탈웨딩홀에서 열린 '홍천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6월 27~28일 홍천군 화촌면 일대 '가뭄현장'을 방문하였다.



▲ 이종주 도의원은 6월 5일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린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석, 6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한금석 도의원은 6월 6일 철원 갈말읍 현충탑에서 열린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6월 17일 춘천 서면초등학교에서 열린 '서면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 대잔치'에 참석하였다.



▲ 신영재 도의원은 6월 2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결산검사 및 현장확인'에 참석, 6월 10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 장석삼 도의원은 6월 22일 양양 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KBS 양양전국사이클대회 개회식'에 참석, 6월 25일 양양 수산항에서 열린 '참가리비 방류행사'에 참석하였다.



▲ 홍성욱 도의원은 6월 10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6월 16일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심영곤 도의원은 6월 9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6월 13일 삼척 원덕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원덕청년회 한마음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 정재웅 도의원은 6월 10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열린 '동계올림픽과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강원포럼'에 참석, 6월 22일 강원대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레거시 창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